논어 9편 자한 28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歲寒，然後知松柏之後凋也。」

독음 · 자왈 세한 연후지송백지후조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추위가 닥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. 어려움 속에서 굳은 절개가 드러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歲 해 세 세 / 寒 찰 한 한

然 불사를 연 연 / 後 뒤 후 후 / 知 알 지 / 松 소나무 송 송

柏 나무 이름 백 백 / 之 갈 지 / 凋 시들 조 조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